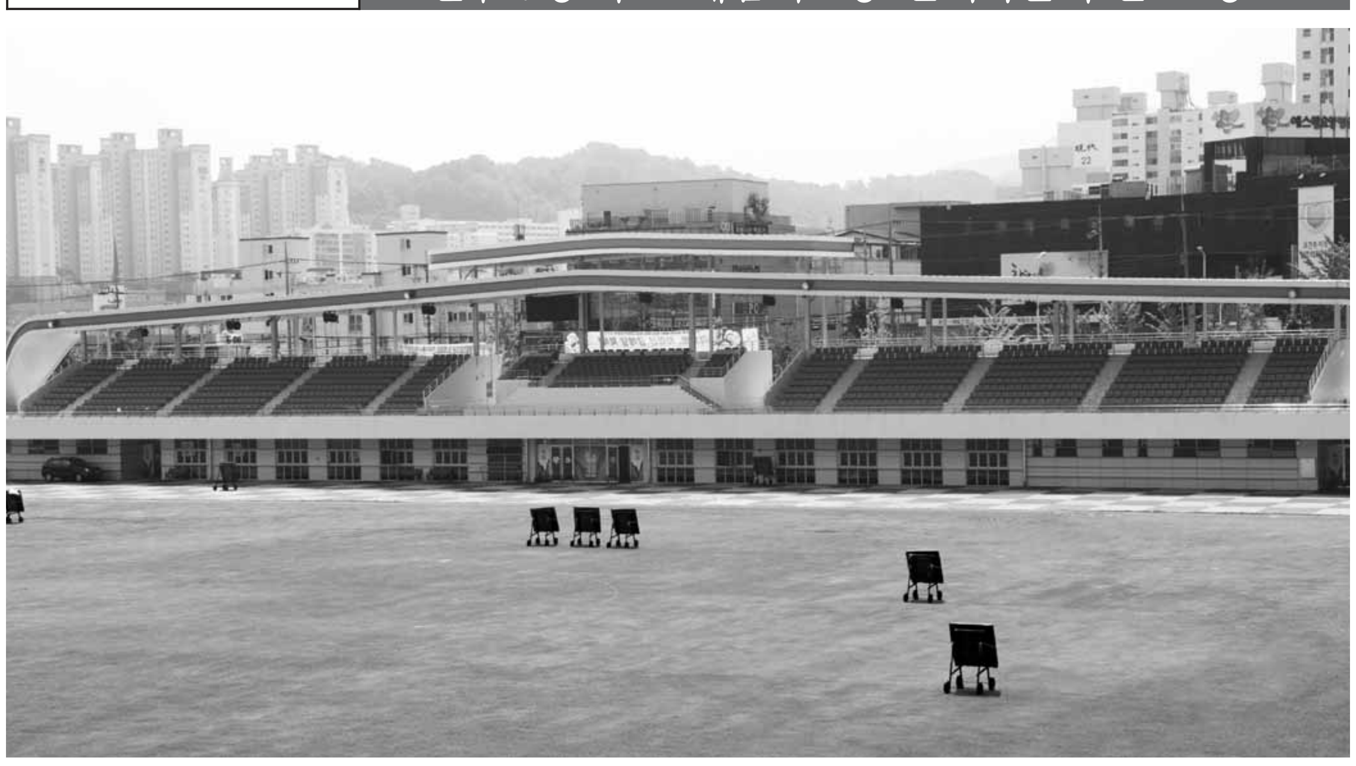
놀고 있는 270억짜리 광주국제양궁장

체육계 무대책·市 무관심에 활용방안 못찾아 애물단지로

국가대표선발전 유치 포기 "축구장 등으로 쓰자" 민원도

하루 평균 이용객 보니 선수 7명·무료 체험객 1명·산책하는 주민 51명



지난 23일 찾아간 광주시 남구 주월동 국제양궁장 경기장이 텅 비어있다. 지난해 7월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이후 1년여간 광주양궁협회·광주시체육회 등 체육계와 광주시가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서 경기장은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하루 평균 선수 7명, 무료 체험객 1명, 산책하는 주민 51명.

혈세 270억원을 들여 지난해 5월 광주시 남구 주월동에 건립한 광주국제양궁장의 1년 이용객 현황이다.

기보배, 최미선이라는 걸출한 스타를 배출한 '양궁의 고장 광주'라는 상징성과 리우올림픽 양궁경기장의 뜨거운 함성은 모두 광주국제양궁장과는 먼 얘기다. 광주국제양궁장은 지난 7월 '2015 광주유니버시아드' 폐막 이후 이따금 중소규모 양궁대회장으로 쓰이고 야간에는 주민 산책코스로 이용될 뿐이다. U대회가 끝난 뒤 광주양궁협회, 광주시체육회나 광주시가 중심을 잡고 경기장 활용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면서 이도 저도 아닌 애물단지로 전락한 것이다.

◇270억짜리 국제양궁장…애물단지 전락=24일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이날 현재까지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양궁대회가 열리거나 선수들의 전지훈련장으로 쓰인 날은 각각 21일과 41일이다. 사용인원으로는 1년간 선수 2543명, 전지훈련 117명 등 2660명으로 하루 평균 7명 안팎이다.

국제양궁장 관리를 맡은 시체육회 측은 선수들이 외면하는 국제양궁장을 활성화해보려고 양궁 무료 체험객을 받고 있지만 홍보와 강사 배치 모두 소극적이어서 이마저도 개점 휴업 상태다. 지난 4월부터 매일 시민을 상대로 무료체험을 하고 동호인에게 장소를 개방한다고 하지만 이용객은 지난 5개월간 338명뿐이다.

초·중·고 학생선수를 포함해 지역 양궁선수들이 국제양궁장을 찾는 발길도 줄고 있다. 지난 1년간 훈련장소로 광주국제양궁장을 찾은 선수들은 하루 평균 10여명 수준이었지만 이마저도 지난 6월부터는 1명 수준으로 급감했다. 시체육회 측은 "학생 선수들 일과 후 야간 훈련을 해야하는데 시민들에게 경기장이 개방되다 보니 사고 우려도 있고, 큰 돈 들여 지은 양궁장을 몇 명이서 독점한다는 따가운 시선도 있는데다 관리인원도 적어 선수들이 서향순양궁장(염주체육관)으로 쏠리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장뿐만 아니라 연면적 2991㎡(900평) 규모에 1, 2층 사무실 20여곳이 갖춰진 관리동 건물도 경기장 관리를 위해 광주시체육회가 쓰고 있는 한 칸 외에는 1년째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체육계의 무대책과 광주시 무관심 합작품=국제규격을 갖춘 번듯한 양궁장이 텅텅 비는 날의 연속이다 보니 주민들 사이에선 '놀릴 바에는 축구장으로 쓰자', '노년층을 위한 게이트볼장은 어떤가'라는 의견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도저도 아닐 바에는 주민들이라도 쓰자는 주장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경기장 활용을 주도해야할 광주양궁협회와 시체육회는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체육계 스스로도 "인력과 예산 지원 없이는 국제양궁장 활성화 및 흥행 대책에 대해 내놓을 게 없다"는 식이다.

광주양궁협회가 올 11월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치르기로 한 '2017년 국가대표 2차 재야선발전'도 예산과 인력 부족의 이유로 최근 대한양궁협회 측에 대회 유치 포기 의사를 전달할 정도로 무기력한 상황이다.

나아가 중국 양궁선수, 동호인들의 잇따른 전지훈련 문의에도 광주양궁협회 등 체육계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내부적으로 흘러나온다. 대회를 유치하고 중국 선수·동호인을 끌어오려면 누군가 적극적으로 나서 홍보활동을 펴고 친선대회 개최 등 움직여야하는데 인력도 예산도 마땅찮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형편이다.

광주양궁협회 일각에서는 "차라리 '웃분'들께 깨지더라도 한 번 여론의 질타를 받고 대책이 마련돼 양궁의 고장 광주에 걸맞게 광주국제양궁장이 제 모습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하소연 했다.

광주시도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상황을 주도해야할 광주양궁협회 등 체육계의 무대책을 알고서도 '국제양궁장 관리는 시체육회에 맡겼다'며 뒷짐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북 예천군의 진호국제양궁장이 지역이 배출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내세우고 전담 공무원 5명을 배치해 적극적으로 대회를 유치하고 하루 평균 600명의 무료체험객을 맞아들여 들썩이는 것과 대조적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 콜레라 환자·가족 모두 '음성'… 의료진도 검사

감염균 국내 보고된 적 없는 유전형…해외 감염원 여부 조사

15년 만에 국내에서 발생한 콜레라 환자가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아 격리 해제됐다. 이 환자의 가족도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아직까지 확산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24일 광주시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지난 18일 콜레라 확진 판정을 받아 자택 격리한 A(59)씨에 대한 2차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다. 이에 따라 A씨에 대한 격리 조치를 해제했다.

전날 이뤄진 1차 검사에서도 음성으로 나왔다. A씨와 접촉한 부인과 아들, 딸 등 가족들도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A씨가 입원했을 당시(11~19일) 치료한 의사 1명과 간호사 17명 등 의료진, 2인실에 함께 입원한 환자 2명에 대해서도 검사를 했다.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아직 의료진과 입원 환자의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경남 남해안으로 함께 여행을 떠난 가족이 추가 감염되지 않아 방역당국은 안도하고 있다. 다만 검사에서 양성 반응자가 추가로 나오면 접촉자 범위를 확대해 역학조사와 검사를 할 계획이다.

한편 콜레라 환자 A씨가 감염된 콜레라균은 국내에서 보고된 적 없는 유전형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A씨에게서 분리된 콜레라균은 혈청학적으로 'O1'형, 생물형 'El Tor'형이었으며 유전자 지문 분석 결과 현재까지 국내에서 보고되지 않은 유전자형이라는 것이다. 방역당국은 이 같은 사실을 토대로 환자가 해외에서 수입된 오염 어패류를 먹었을 가능성, 해외에서 감염된 다른 사람을 통해 콜레라균에 노출됐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역학 조사를 진행 중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41억 수의계약 특혜 의혹 순천시 압수수색

윗선 개입 여부 조사

41억대 관급자재 수의계약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순천시를 압수수색했다.

순천경찰은 지난 23일 오후 순천시 맑은물관리센터에 수사관을 보내 계약담당 공무원 김모씨(56)의 사무실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41억원 대의 수의계약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시민단체가 제기한 조충훈 순천시장 등 윗선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관급자재 중 41억원의 조립식암거블록 17종을 구입하면서 7종(24억원)과 10종(17억원)으로 나눠 계약을 체결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17억원대의 자재 구매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24억원대 자재 구매도 조달청에 수의계약을 의뢰한 것으로 전남도 감사결과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순천시민단체는 지난달 19일 "순천시 행정 전반의 수의계약 불법특혜 의혹 건은 조충훈 순천시장은 물론 고위 공무원들의 유착 또는 묵인이 없이는 발생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조 시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순천경찰서로 이첩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에 이어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 관계자, 수의계약담당 공무원인 김씨와 부하직원, 해당 부서 과장 등을 불러 조사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대포폰·통장 매매 조폭 등 무더기 적발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고 판 조폭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노숙자·지적장애인 명의 대포폰과 통장을 유통한 혐의(사기 등)로 조직폭력배 김모(24)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명의 대여자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노숙자 14명, 장애인 2명의 명의를 빌려 대포폰 98대, 대포통장 8개를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포폰은 1대당 30만원, 대포통장은 1개당 200만원을 받고 불법 스포츠도박업자 등에게 판매해 4700만원의 불법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광주광천터미널과 광주역 부근에서 배회하는 노숙자와 장애인에게 접근, "휴대전화나 통장을 개설해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며 환심을 샀다. 이들이 피해자에게 준 수수료는 대포폰은 대당 2만원에 불과했지만 사용료로 피해자는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570만원까지 요금을 떠안게 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서삼석 전 총선 후보 구속영장 또 기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서삼석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등 3명에 대해 법원이 또 다시 영장을 기각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지난 23일 서 전 후보에 대한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서 전 후보 등이 지난 4·13총선을 앞두고 선거 유사 조직(무안미래포럼)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 전 후보와 함께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강 전 부군수 등 무안미래포럼 관계자 2명에 대해서도 기각했다. 무안미래포럼은 무안지역 발전을 모색한다는 취지로 2014년 설립됐으며, 서 전 후보는 고문을 맡았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노숙인 사이 대장 노릇하며 상습 행패 50대 '쇠고랑'

쌍나팔

○…목포역 광장 일대에서 노숙 생활을 하면서 대장 노릇을 하던 50대 노숙인이 술을 마시고 동료 노숙인과 인근 주민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가 쇠고랑.

○…24일 목포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박모(55)씨는 지난 22일 새벽 1시20분께 목포시 목포역 광장에서 식당 종업원 A(33)씨를 수차례 때리는 등 지난달 21일부터 최근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동료 노숙인과 주민 5명을 폭행한 혐의.

○…전과 36범인 박씨는 평소에도 동료 노숙인 사이에서 대장 노릇을 하면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고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휘둘렀는데, 경찰은 "박씨는 지난 2014년에도 목포역 일대에서 동료를 폭행한 혐의로 1년6개월의 실형을 살고 최근 출소했다"고 설명.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평택 토지 전문

SAMSUNG ▶120만평 LG전자 ▶110만평

(평택 신도시 530만평) (현덕지구70만평) (미군기지이전) (KTX 개통) (평택 항)

※ 대한민국 최고의 투자처 !!! 평택 투자 절되 후회 없습니다.

◈ 경기도 평택시 전원주택지
송탄 소방사거리 1분 !!
토지 – 1,611평
토목 공사완료 (허가완료)
최고의 입지 조건
※ (총 7 필지 분할가능)
1필지 200평 3억
→ 1억 투자시 가능 (융 2억)
※ 개발시 순수익 5억
▶ 매가 16억

◈ 경기도 화성시 공장부지
정남 IC 5분 !!
평 수 – 1,770평
현재 허가중
(현재 공장부치 최고의 도시)
※ 개발시 순수익 10억
▶ 매가 10억 (평당 56만)

평택 토지 소액 투자

① 평택시 진위면 마산리
301평 (평당 170만)
마산산단과 LG전자 정문 앞 위치
▶ 매가 5억2천

②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613평 (평당 95만)
고덕신도시 5분
▶ 매가 5억8천 235만

③ 평택시 고덕면 좌교리
775평 (평당 120만)
고덕신도시 5분 ,도로접합
▶ 매가 8억5천만

010-7384-7800 031-611-3600

전남 영광 전원주택 매매

영광읍 신월리 → 광주에서 40분 !!
◐ 토 151평 , 건 43평
◐ 영광 터미널 5분 (농가주택 최적합!!)
▶ 매가 8천500만

근린상가 (오피스텔) 소액 투자

▣ 동구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 6층 (45평) 올수리 천변로 전망 좋음
→ 보증금–1,000만, 월세 60만(융 5천)
▣ 매가 1억 4천만

▣ 서구 쌍촌동 원룸 (오피스텔형)
→ 2층 (11평) 운천역 1번출구에서 3분거리
→ 보증금 200만 월 30만 (융 1천)
▣ 매가 3천 5백만(전세값으로 내집마련)

▣ 상무지구 수림 오피스텔
→ 6층 (23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옆
→ 보증금 500만, 월세 45만 (융 1천 6백만)
▣ 매가 8천 500만
▣ 매가 8천 500만

▣ 상무지구 수림 오피스텔
6층 (19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옆
보증금 500만, 월 42만 (융 2천4백만)
▣ 매가 7천 500만

▣ 전남 광양 광영동 상아 아파트
→ (15평) 12층 – 전망 좋음,
주변 골프장 ,아파트 밀집지역
→ 보증금 200만 , 월 25만
(전세 2천5백만 가능)
▣ 매가 3천 5백만

▣ 서울 용산 청파 도시형
→ 지하 (13평) 숙명여대 1분!
→ 보증금 600만 월 60만
▣ 매가 1억6천 (융 5천)

▶ 매가 8천500만

법률 경매
㈜ 대신경매

★ 경매 물건 추천 ★
① 북구 중흥동 (근린시설)
토 222평, 건 136평
수입자동차 정비소, 광주역 1분
▶ 감정가 12억 →최저가 8억3천
② 광산구 신창동 (다가구 원룸)
토 70평, 건 108평
신창중 정문, 신축건물
룸 11개 – 월수익 350만
▶ 감정가 4억6천 → 최저가 3억7천
③ 전남 장성 북하면 (식당건물)
토 280평, 건 253평
백암산 관광지 입구, 식당밀집지역
▶ 감정가 7억8천 → 최저가 5억5천

경매교육
▣ 기본이론들으면서 실전 교육 듣고 바로 수익창출 가능
▣ 매주 오픈
▣ 입찰부터 임대, 매매, 개발기획까지 (원스톱 강의)
☆ 경매 실전 교육 ☆
바로 실전으로 수익창출 하실분!!
특수물건, 유치권, 가장임차인, 경매입찰 등
실제 경험, 가장 중요한 실무교육 합니다.

직원 구함
부동산 경매 관심있으신분
공인중개사 환영
실전 경험자 우대, 환영

062-382-5500 010-6834-4800